삼위일체 대축일 강론(2019년 6월 16일)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미국의 신대륙을 개척한 역사를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8세기 초에 두 명의 젊은이가 청운의 꿈을 안고 영국에서 배를 타고 신대륙인 미국에 내립니다. 동갑내기 친구였던 그 두 사람은 이후 미국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는데, ‘마르크 슐츠’와 ‘에드워드 조나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신대륙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마르크 슐츠라는 사람은 무조건 돈을 많이 벌기로 작정하고, 뉴욕에 작은 술집을 하나 차립니다. 아주 열심히, 쉬는 날도 없이 이 술집을 운영했고, 술집은 날로 번창합니다. 결국 그의 소원대로 엄청난 돈을 벌어 당대의 가장 큰 부자가 됩니다.

 반면에, 같이 미국에 온 에드워드 조나단이라는 사람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있는 신대륙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로 합니다. 착하고 바른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는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150년 정도 지나서, 5대 자손들이 태어난 후에, 뉴욕시의 교육위원회에서 이 두 사람의 자손들을 추적해서 과연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돈만 무조건 많이 벌기로 작정하고 평생 술집을 운영했던 마르크 슐츠는 5대를 거치면서 모두 1,062명의 자손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 자손들이 모두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사 결과, 교도소에서 5년 이상 형을 살은 자손이 96명, 정신 이상이나 알콜 중독자가 58명, 술집 접대부가 된 자손이 65명,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자가 460명, 정부의 보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극빈자가 286명, 그 결과 정부의 재산을 축낸 돈이 도합 1억 5천 만불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평생 술집만 운영하면서 돈만 벌었던 마르크 슐츠는 비록 큰 돈을 벌어 당대 최고의 부자가 되기는 했지만, 술집 경영에만 매달렸던 아버지 밑에서 자식들은 제대로 교육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늘 술집에서 일하는 아버지만 보고 자란 거죠.

 반면에, 신앙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에드워드 조나단은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을 설립하고 5대를 거치면서 1,394명의 자손을 갖게 되었답니다.

 자손들을 추적해 본 결과, 선교사 목사만 116명, 예일 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수와 교사가 86명, 군인이 76명, 정부의 고위 관리가 80명, 문학가 75명, 사업가 73명, 과학자 21명, 부통령과 상, 하의원 주지사가 각각 한 명씩 나왔고, 교회에 봉사하는 장로와 집사가 286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 5대를 거치면서 이 가문에서 낸 세금의 액수가 어마어마한 금액이었고, 정치, 사회 지도자로서 미국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같이 미국에 와서 시작한 두 청년이 한 명은 완전 콩가루 집안이 된 반면, 다른 한 명은 아주 훌륭한 집안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신앙의 유산’이 자손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 줄 수 있는 유산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부모들은 좋은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 주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유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야 말로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오늘은 삼위 일체 대축일 입니다. 부활 시기가 끝난 직후에, 교회의 전례는 아주 놀라운 하느님의 신비를 전하면서 연중 시기로 들어갑니다.

 지난 주에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냈습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은 예수님께서 하늘 나라로 오르시면서 성령을 보내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삼위 일체 대축일, 다음 주에는 예수 성체 성혈 대축일을 지내게 됩니다.

 오늘 지내는 이 삼위 일체 대축일은 하느님 신비 중에 가장 중요하고 중심에 해당하는 신비입니다. 가톨릭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의 신비는 우리 인간이 완전하게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인간의 작은 머리로 하느님의 엄청난 신비를 다 이해하고 담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비,’ ‘mystery’ 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신비를 연구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어거스틴 성인이 하루는 우연히 바다 모래 사장을 걷다가 어떤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이 하도 이상해서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 아이는 바닷물을 조개 껍데기에 퍼 담아서 모래 사장에 파 놓은 작은 구멍에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를 계속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어거스틴 성인이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애야,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니?”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바다를 이 작은 구멍에 옮겨 담고 있어요.” 그 순간 어거스틴 성인은 평생을 고민해 오던 하느님 신비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느님의 신비를 이해하는 것은 마치 커다란 바다를 모래 사장 위에 있는 작은 구멍에 퍼 담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하느님의 신비는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머리로는 다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신비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성인은 이야기 합니다. “하느님의 신비는 그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물으려 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느님 신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를 묻는 것이 아니라, ‘왜 하느님이 그런 신비를 지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느님은 그런 신비를 지니는 것일까요?

 ‘삼위 일체’는 말 그대로, ‘세 분이 한 분이신 하느님’이란 뜻이죠. 성부이신 하느님, 성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이 세 분이 완벽한 조화와 일치 안에서 한 분이신 하느님이 라는 겁니다. 세 분이 완전히 한 분, 서로 다른 역할과 존재를 가지면서도, 하나이신 하느님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어떻게’를 묻지 마시고, 그건 설명도 이해도 어려우니까, ‘왜 그런 것일까?’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답은 사랑입니다. 하느님이 삼위 일체의 신비를 갖는 이유는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늘 인간과 함께 있기 위해서, 하느님은 삼위 일체의 신비를 갖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신비를 본받고 닮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일치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그래서 하늘 나라로 향하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삼위 일체 신비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깊이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신비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신비처럼, 부부가 서로 희생하고, 용서하고, 서로 일치할 때, 자식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그 신비처럼, 하느님의 삼위 일체의 신비는 우리를 사랑의 일치로 이끄는 신비입니다. 그리고 머리로 이해해야 하는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삶으로 직접 살아 가면서 느끼고 깨닫는 신비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희생하면서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삼위 일체의 신비를 살게 됩니다.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면서, 마음 따뜻해지는 순간을 느낄 때, 삼위 일체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돕고, 서로 희생하고, 나누고, 서로 용서하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일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때, 참된 행복과 참된 평화가 가득한 삼위 일체의 신비를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